



가상자산범죄에 대한 수사 확대

2023.11.10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동향

2023. 7.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맞추어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한국거래소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에서도 전담 광역수사대 신설이 추진되는 등 법령제도의 미비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인식되던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2. 확대된 수사 유형

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관련 정보 등 가상자산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보의 불법유통, MM업체를 통한 자전거래, 다수 계좌 또는 프로그램을 동원한 시세조종, 가상자산 발행수량 및 유통량 기망 등에 따른 부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폭넓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법무법인(유) 세종의 대응

법무법인(유) 세종은 2016년부터 가상자산거래소의 설립 및 운영, ICO(Initial Coin Offering), 송금, Crypto-Fund, 탈중앙화금융(De-fi), 다단계 사기 등 가상자산에 관하여 다양하고 심층적인 업무를 처리해왔고, 또한 자본시장의 시세조종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내부자거래)부정거래와 관련된 여러 중요한 형사사건에 관여하여 변호인으로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위와 같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2023. 7. 가상자산 수사 대응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수사 대응센터 브로슈어 보기](#)

관련구성원

이정환

변호사

02-316-4015

jhwlee@shinkim.com

김민형

변호사

02-316-2812

mhyokim@shinkim.com

황현일

변호사

02-316-4453

hihwang@shinkim.com